

지역 소식통

고창군, 설 연휴 24시간 비상 진료 체제 운영

고창군이 설 연휴 기간 중 응급환자 진료와 군민들의 의료기관 이용불편 최소화를 위해 11~14일(4일간) 보건소에 비상진료대책상황실(560-8774)을 운영한다.

지역응급의료기관인 고창병원은 설 연휴 기간 동안 24시간 응급환자 진료가 가능하도록 응급실 전담의사 배치 등 비상진료 체제를 유지한다.

연휴기간 요일별로 당직의료기관 11개소가 지정된 근무일에 비상진료를 실시한다.

의약품 구입을 위한 약국 8개소도 일자별로 연휴 기간 중 휴일지킴이 약국으로 지정돼 군민의 의약품 구입에 불편이 없도록 운영된다.

특히 설 연휴기간 코로나19 등 감염병 관리체계 강화와 방역대책 비상근무를 위해 고창군 보건소에 선별진료소(560-8716)도 가동된다.

방역대책반은 역학조사반, 이송반, 선별진료소 근무반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

정읍시가 민족 대명절 설을 앞두고 따뜻한 명절 분위기 조성에 나섰다.

유진섭 시장을 비롯한 정읍시 공무원들은 8일 새벽, 연지, 신대인 3개 전통시장을 방문해 설 장보기 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장보기 행사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상인들에게 힘을 보태기 위해 마련됐다.

유 시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소비자 부진과 대형마트 등에 밀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인들을 위로·격려하고 시장을 방문한 고객들과 덕담을 나눴다.

이어 미리 구매한 '정향누리 상품권'으로 지역 농산물과 설 명절에 사용할 제수용품 등을 구매했다.

이날 장보기 행사를 통해 구입한 물품들은 노인·장애인시설 등 사회복지시설 4개소에 전달하며 따뜻한 설 명절 만들기에 앞장섰다. /정읍=김대환 기자

# BM활성수 축사 환경 개선

정읍농기센터, 약취 저감·가축 생육 촉진·질병 예방... 시민 무료 공급

정읍시가 BM활성수 공급으로 축사 약취 저감과 가축 생육 촉진이란 두 마리 토끼를 잡으며 축산농가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BM활성수는 유용 미생물(Bacteria), 광물(Mineral), 물(Water)의 생물학적 상호 관계를 이용해 미네랄을 추출·농축해 생산된 물이다.

미생물 대사산물과 칼슘, 마그네슘, 게르마늄 등 생명체에 유익한 각종 영양소가 다량 함유되어 있다.

BM활성수는 축산 사료와 급수에 사용하면 가축분뇨에서 발생하는 악취와 파리, 모기 등 해충 번식을 억제해

축사 환경개선에 효과적이다.

또한, 송이자의 설사를 방지하고, 호흡기 질병을 예방하는 등 가축 질병 예방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 2014년부터 정읍시민을 대상으로 BM활성수를 무상으로 공급해 오고 있다.

지난해에는 1,887개 농가에 1,066톤의 BM활성수를 공급해 가축의 생산성 향상과 축사악취 개선에 기여했다.

BM활성수는 정읍시민이면 누구나 농업기술센터를 방문해 무료로 공급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정읍시 농업기술센터 미

생물배양실에서는 고품질 친환경 농축산물 생산을 위해 연간 160톤 규모의 유용 미생물을 생산·공급해 오고 있다.

미생물배양실에서 생산하는 유용 미생물은 고초균과 광합성균, 유산균, 효모, 클로렐라 등 5종이며, 지난해 600여 농가에 공급했다.

축산과 관계지는 "앞으로도 BM활성수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생산시설 관리에 노력할 것이라며 많은 축산농가가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농가 홍보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군은 민·관 협력으로 해당 주민의 가정을 찾아 수년간 방치된 각종 쓰레기와 가구물, 동물분변을 정리했다.

## 고창, 쓰레기더미 속 위기가정 구해

고창군 대산면이 긴밀한 민·관 협력으로 쓰레기더미 속 위기가정을 구해냈다.

고창군 대산면행정복지센터는 지난 달 말 한 동물단체에서 "반려견 수 마리가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방치되고 있다"는 제보를 접수했다.

담당자가 즉시 현장을 찾아가 보니 쓰레기 더미가 가득했다. 이곳에서 심신미약 상태의 한 주민과 반려견 16마리가 한 공간에서 지냈고, 오랜 기간 제대로 된 관리가 이뤄지지 않자 보니 곳곳에 동물 분변이 널려 있었다.

해당 주민의 정신건강 상담이 급했고, 견주와 개들의 분리도 이뤄져야 했기에 종합적인 지원책 마련이 시급했다. 이에 대산면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강부덕)와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신종원)를 소집하고 주거환경 개선책을 논의하고 곧바로 실행에 들어갔다.

동물단체, 행정복지센터 직원들의 설득을 통해 기르던 개 모두를 동물단체에 위탁하고, 좋은 가정을 찾아 입양해 주기로 했다.

또 지난 4일에는 대산면 주민자치위원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마을주민, 행정복지센터 직원들이 대청소 봉사에 나섰다. 수년간 방치된 각종 쓰레기들과 가구물, 동물분변을 말끔히 정리했다. 곰팡이로 검게 변한 벽지와 싱크대도 견여냈다. 각 단체들은 향후 도배와 장판, 싱크대·이불 등 지원할 계획이다.

보건소 정신건강증진센터 역시 정신건강 상담을 시작하고 행정복지센터와 연계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진행하기로 했다.

대산면 조우삼 면장은 "민·관 사회단체가 협력해 나눔과 봉사로 촘촘한 사회복지 안전망을 갖췄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면민 모두가 행복한 대산면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 정읍아산병원, 아동학대 전담병원 지정

정읍시가 지역 내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 아동보호를 위한 대응체계를 강화한다.

시는 학대 피해 아동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의료 조치를 위해 정읍아산병원을 아동학대 전담병원으로 지정했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정읍아산병원은 학대 피해 아동에 대한 상담과 신체적·정신적 치료 등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최근 아동학대가 주요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시는 아동학대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발 빠르게 움직였다는 평이다.

정읍아산병원은 응급의료센터와 소아청소년과, 정신건강의학과 등의 진료 체계가 구축돼 있어 학대 피해 아동에 대한 통합적인 의료서비스 지원이 가능하다.

시는 아동학대 전담 대응팀도 신설하고 아동들의 안정적인 성장환경 조성과 권리 향상에 역량을 모으고 있다. 또한, 아동학대 긴급전화(063-536-1391)를 설치해 24시간 대응체계를 갖추는 한편,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의 교육을 확대해 전문성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오는 3월까지 학대 우려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유사 사건의 재발을 사전 방지할 계획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 정읍시, '코로나19 예방수칙' 홍보 캠페인

시장 상인 애로사항 청취·격려



유진섭 정읍시장이 지난 6일 전통시장을 찾아 설 명절 앞두고 코로나19 예방 홍보를 하고 있다.

유진섭 시장이 설 명절을 앞두고 유동 인구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총정로 상가와 새고을 시장 등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예방수칙' 홍보 캠페인에 나섰다.

유진섭 시장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들은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지난 6일 시민 왕래가 많은 주요 거리와 전통시장을 찾아 코로나19 예방수칙 홍보물을 배부했다.

이번 활동은 명절을 맞아 와 코로나19 예방수칙 준수의 중요성에 대한 범시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주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유 시장은 예방수칙 안내와 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시민들에게 설 명절 이용 멈춤과 손 씻기, 마스크 착용 등 개인 예방 행동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격려와 위로를 전하며, 상권 회복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유 시장은 상인들과 주민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과 코로나19 대응 방안에 대한 계획도 설명했다.

계획에 따르면 백신은 감염병을 관리하는 국제기구인 코백스를 통해 2월 중순부터 순차적으로 국내에 들어온다. 유 시장은 안전하고 빈틈없는 접근을 위해서 이달 1일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7팀 155명의 백신접종 추진단을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또 백신접종 지원과 이상 반응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예방접종 콜센터를 운영하고 질병관리청과의 핫라인도 구축 운영할 계획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 부안군, 국가지질공원 위도 공통알 화석지 정비사업 추진

부안군(군수 권익현)은 국가지질공원 위도 공통알 화석지 정비사업을 시행해 탐방객들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공통알 화석지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서 탐방로 개설 및 데크와 안전·편의시설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위도 공통알 화석지는 후기 백악기(약 8500만년 이전)에 강 인근의 범람원 환경에서 퇴적된 자색 이암층에서 직경 약 18cm 정도 크기의 타원형 화석 30여개가 동지를 이루고 있는 국내 최대 화석지를 2013년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 부안군 위도에서 공통알 산란지를 발견해 화제가 됐다.

부안군은 오는 15일부터 국가지질공원 위도 공통알 화석지 정비사업 실시계획 용역을 시행하고 4월부터는 2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탐방로 개설과 탐방데크 및 안전·편의시설 등의 정비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부안=김석진 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